

7. 보경의 방 안 (낮)

방에서 휴대폰을 찾는 보경. 지원이 두리번거린다.

지원: 아저씨는? 집에 계셔?

보경: 집에 아무도 없어.

보경, 보조배터리를 물린 휴대폰을 지원에게 확 던진다.

보경: 배터리 죽었어. 기다려.

보경, 의자에 앉아 게임용 헤드셋을 쓴다. 보경의 책상 위엔 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이 가득 쌓여있다. (LED 조명이 현란하게 빛나는 보경의 조립컴.)

지원: 또 게임해?

대답없이 의자에 앉아 게임용 헤드셋을 쓰는 보경. 지원, 이번에는 보경 바로 뒤에 가서 어깨를 툭툭 친다.

지원: 화났냐?

보경: 아니, 그냥 생각 중이야.

입을 꼭 다문 채 턱을 내민 보경의 모습이 영락없는 화난 사람이다. 배틀 그라운드를 실행해 열심히 총 쏘는 보경.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는지 마우스를 팽개친다.

지원: 뭐 생각하는데.

보경: (휙 뒤돌아보며 쏘아붙인다)
뒤졌는지 살았는지 전화 한 번 안하다가
갑자기 나타나서 전화 좀 쓰자는 니 얼굴 같기는 생각.

지원: 화난 거 맞구만.

보경: ...

지원: 너 우리 언니 번호 있지?

보경: 없어. 지웠어.

지원: 뭐?

보경: 너네 언니한테 너 어디로 전학갔냐고 물어봤는데 답장 안해주더라.
뺏쳐서 지웠어, 번호.

지원: (기가 차다는 듯) 아니 너도 내 상황 다 봤잖아...
학교 생활도 힘들어지고 애들도 다 나 피하고.

보경: 네가 나를 피했지.
연락도 안 받고, 일부러 나 피해서 하교도 빨리 하고.
학교 안나오길래 집까지 찾아갔더니 이사 갔다더라.
그걸 내가 네 윗집 할머니한테 들었어.

지원: 어떡해, 그럼?
솔직히 민희랑 나랑 전교에 소문 짝 퍼졌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해줄 건데.

보경: 그냥 옆에 있어 줄 순 있지.

지원: ...